

Bernina Express

베르니나 특급으로 찾아가는 코발트빛 호수



1 베르니나 특급이 비앙코 호수를 지나고 있다. 2 알프 그륌역의 레스토랑 벨베데레의 향토 메뉴 3 레스토랑 벨베데레의 테라스 앞에 펼쳐진 알프스의 절경 4 사오세오 호수

베르니나 특급(Bernina Express)은 만년설이 있는 엥가딘(Egadine) 계곡과 스위스 남쪽의 이탈리아 풍경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기차다. 고도차가 심한 철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면 파노라마 뷰가 극적으로 펼쳐진다. 알프스를 통과하며 가장 호화찬란한 절경을 보여 준다. 또 베르니나 특급을 타면 근사하면서도 가장 현지인다운 점심을 즐길 수 있다. 중간역인 알프그륌에서 정차하면 역사 내 식당에서 메밀로 만든 전통 파스타나 퐁뒤, 말린 육포 등을 맛볼 수 있다. 현지에서 공수한 재료로 정성껏 조리된 식사를 마친 뒤엔 내리막길에 펼쳐지는 풍경에 매료될 차례다. 깊은 계곡 아래로 코발트빛 포스키아보 호수(Lago di Poschiavo)가 손에 잡힐 듯 가깝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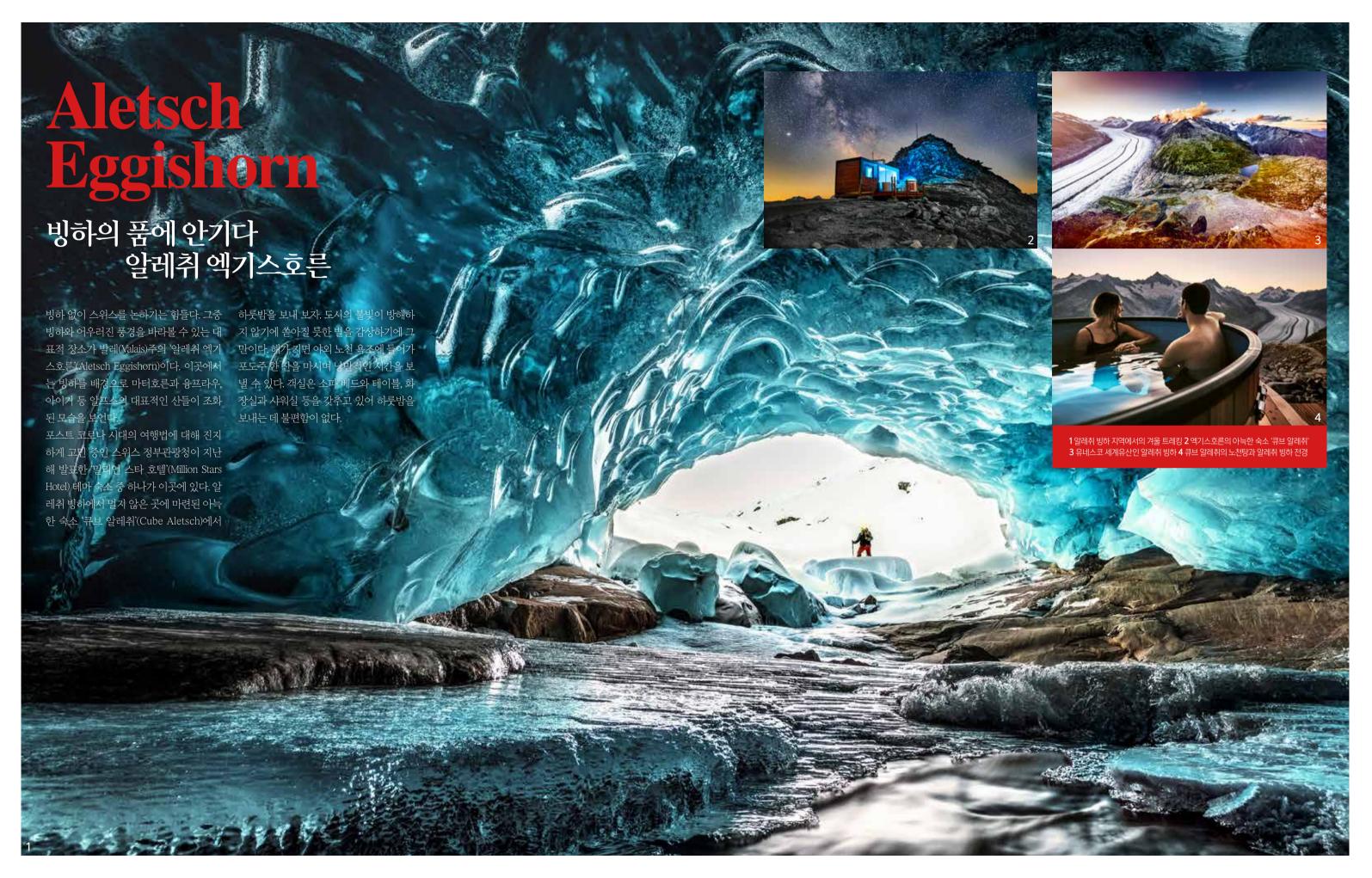
스위스는 2013년부터 기관차와 철도 관련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% 를 수력전기를 통해 공급한다. 탄소가 최소화된 외부 공기 조절, 난방을 위한 재생 에너지 사용 등의 방법으로 철도가 운영된다.





88 | YONHAPImazīne July 20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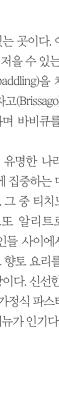






티치노

부 티치노(Ticino)주는 여느 스위스 지역과 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고장이다. 열정적인 해 솟아오른 야자수가 마치 휴양지 같은 느 낌을 준다. 마지오레(Maggiore) 호수는 이런









1 로쉐 드 녜의 파노라마 하이킹 2 로쉐 드 녜 중턱에서 바라본 몽트뢰 3 역에서 맛보는 퐁뒤 식사

Rochers de-Naye 레만호의로쉐드녜

레만호가 있는 보(Vaud)주의 작은 마을 몽트뢰에서 해발 2천42m의 로쉐 드 녜(Rochers de-Naye) 정상까 지는 톱니바퀴 열차로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. 몽트뢰에서 1892년에 만들어진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정상에 내리면 스위스와 프랑스의 알프스 봉우리들 과 함께 레만호가 한눈에 들어온다. 로셰 드 녜 정상 까지는 레만호와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파노라마가 끝없이 펼쳐진다. 이곳은 쉽게 거닐 수 있는 하이킹 트레일이 매력적이다. 트레킹 도중 운이 좋다면 알프 스의 두더지 마모트도 맞닥뜨리는 행운을 잡을 수 있 다. 전 세계의 식물을 볼 수 있는 정상의 알프스 정원,

람베르티아(Rambertia)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.





산속에서 노를 저어 볼 수 있는 티틀리스

스에서는 중앙 스위스 알프스와 빙하의 파노라마를 한 로 향할 시간이다. 낭만적인 산정호수, 트륍제에서는 4 눈에 바라볼 수 있다. 곤돌라가 정상에 도착하는 마지 인용 나룻배를 빌릴 수 있다. 배 대여료는 무료지만, 마 막 600m 구간 동안 360도 회전하며 사면의 풍경을 보 면된 상자에 10스위스프랑(약 1천200원)을 자발적으로 여준다. 5분 동안 천천히 회전하는 티를리스의 회전 곤 발 수도 있다. 트륍제 호수 역에는 아름다운 야생화를 놓인 구름다리 클리프 워크(Cliff Walk)를 건너며 아찔 사진제공=스위스관광청 한 빙하 체험도 즐길 수 있다.

세계 최초의 회전 곤돌라로 유명한 루체른주의 티틀리 정상 빙하 체험을 마쳤다면, 중간역인 트륍제(Trubsee)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'플로라 트레일'이 있다. 걷는 내

